

특별기고

## 예언 속의 감나무와 정도령

격암유록에는 '시모자생 중모자사(術謀者生 衆謀者死)'라고 하는데 이는 감나무를 꺾으면 살고 세상의 무리와 같이 욕심에 따라 살면 죽는다. 는 말이다. 감나무의 물상(物象)을 관찰함으로써 그 의미를 파악해보자.

### 첫 번째 가지에서 나온 두 번째 가지 끝에 감이 열린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감나무에 아기 주먹만 한 푸른 감이 열린다. 많이도 열리지만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증산 선생은 '감아, 감아. 열거든 떨어지지 말고 떨어지려면 열지나 말거라.' 하였다. 애원하는 심정으로, 뼈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 감나무의 진액(甘肉海인)을 빨아들인다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하여 때가 무르익어 가면 감도 자연스럽게 익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만하면 충분히 익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까치밥이 되는 수도 있으니 오직 감나무의 진액만 받아들이는 데 집중해야 되리라.

감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감나무 원체에는 감이 열리지 않는다. 거기에서 나온 첫 번째 가지에도 감이 열리지 않는다. 첫 번째 가지에서 나온 두 번째 가지 끝에 감이 열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감나무 원체와 두 가지가 나오고 두 번째 가지 끝에 감이 열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격암유록에서 볼 때 감나무 원체는 궁궁(弓弓)이고 두 가지는 을을(乙乙)인 셈이다. 십인생산 일남일녀(十人生一男一女)로 표현하기도 한다. 십인(十人)은 하늘의 사람이며 감나무 원체로서 궁궁인이다. 일남일녀는 '두 가지'이며 을을이다. 일녀가 먼저 오고 마지막에 일남이 오게 되니 성경에서 말하는 헤와와 아담을 상징한다. 두 번째 가지가 아담을 상징하며 둘째 아담이다. 첫째 아담은 산영이요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으로 두 번째 가지가 구세주가 된다. 왜냐하면 '구세주라 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려준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감(나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명사

### 강증산 사후에 감나무로 상징되는 하늘의 사람이 나온다

감나무 원체의 생명수가 1이고 첫 번째 가지(4)에게 도를 먼저 전하니 생명수의 합이 14가 되고 다시 두 번째 가지(4)에게 생명수가 전해지니 생명수의 합이 144가 된다. 생명수가 144가 되어야 하늘농사를 지어 알곡을 추수하게 되니 그 알곡이 신선세계에서 살 수 있는 종자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완전한 감나무가 되려면 세 번의 단계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천국은 삼죽일 일죽삼(三即一 一即三)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삼위일체, 삼신일체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이다.

흔히들 삼변성도(三變成道)라는 말도 이에 다름 아니다. 미륵불이 묘사된 김제 금산사가 외관이 삼층으로 되어 있고 승리제단의 성전 내부도 이런 이치로 지어져 있다. 삼인동행칠십이(三人同行七十二), 삼림출세천수박(森林出世天數朴), 이자삼점(伊字三點), 상진사(上辰巳)·중진사(中辰巳)·하진사(下辰巳) 또는 천존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라 등등 고인(高人)의 말도 다 같은 표현이다. 미륵삼존불이라는 말 그대로 세 분이 오시는 것이다.

그런데 감나무 원체에서 나온 첫 번째 가지(헤와)는 실제 여인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서 천지역사를 하지

아니한다. 감나무 원체와 두 번째 가지(아담)가 남자의 몸을 입고 와서 세상에 천지역사를 하게 된다.

이를 격암유록이나 육도삼략에서는 묵운과 금운 두 사람을 말하고 증산 선생도 당신 이후에 두 사람이 나올 것을 예언한 바 있는 것도 이를 말하는 것이다.

강증산 선생 사후 제자 안내성이 별도의 교단을 이끌고 있을 때 그 교단의 어떤 사람이 감나무를 심고 있는 내성을 보고 "아니 선생님, 금방 때 된다고 한 양반이 무슨 감나무를 다 심으세요?"하며 의아해 하거늘 내성이 "아, 심어놓고 불라고 그러지." 하고 대답하니라. 여기서 감나무란 강증산 사후에 감나무로 상징되는 하늘의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감(나무) 정도령은 감로해인으로 사람을 살리는 무궁한 초화를 부린다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감람나무가 없으므로 격암유록에서는 감나무로 표현해서 하늘의 비밀을 드러낸다. 감(나무)은 하나님의 대명사이다. 그래서 궁궁으로 오신 하나님이 인간(박태선 영모님)의 몸을 입고 와서 전도관(傳道館)을 세워 천지개벽의 역사를 하였다.(격암유록에서는 박태선(朴泰善)과 전도관(傳道館)이란 실명이 그대로 나

온다) 박태선 영모님은 스스로 감람나무임을 외쳤고 불의 사지라고 불리었다.

전도관의 목적은 이름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다. 무슨 도를 전하는가? 도는 유불선 합일의 도, 불사영생의 도를 전한다. 누구에게 전하는가? 을을(乙乙)에게 전한다. 여인 한 분(一女)에게 먼저 전하고 궁궁(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을을 일녀는 밀실에서 을을 일남(一男)을 키우고 도를 전한다. 일남은 무서운 연단 과정을 거쳐 마침내 무극대도를 완성하니 '을을 일남(둘째 아담)'은 궁궁을 심승 정도령이 되었던 것이다.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좌정하게 되었다는 말이다(似人 不人 天神降사인불인천신강).

정도령은 계룡산에 도읍을 정하여 지상에 신선의 나라를 만든다. 라고 격암유록은 말한다. 여기서 계룡은 산 이름이 아니다. 계룡은 궁궁을을 정도령을 말한다. 불로불사의 신선이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도령의 목적이다. 불로불사 영생이 되려면 사망의 신 마귀를 죽여야 하므로 마귀를 죽이는 무기를 들고 출세한다. 그 무기가 바로 살마광선 감로해인이다. 마귀를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무궁초화 감로해인에서 나온다.

정도령은 감로해인을 임의용지하며 정도령으로부터 감로해인을 받아야 살고 감로해인을 받아 잘 간직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인간은 삼시 세 때 먹어야 살지만, 마지막엔 곡기를 끊고 굶어 죽게 된다(一日三食飢餓 일일 삼식기아사). 감로해인은 삼삼일애 아홉 번만 먹어도 굶주리지 않고 장생할 수 있다(三旬九食不飢生 삼순구식불기생).

시지부지(時至不知) 때가 되었는데도 모른니 철부지(節不知)가 되면 되겠는가? 새로운 질서가 열리고 새로운 문명이 태동하고 있다. 시대정신을 바로 알아차리고 불로불사의 신선세계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자 한다면 정도령을 만나야 하고 감로해인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010-3912-5953)

## 금주의 말씀 요절

###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64> "예수는 말세의 뜻도 몰랐다"

말세론적 입장에서 살펴봐도 예수는 그 당시에 말세라고 하였으니 말세의 뜻도 몰랐던 것이다. 성경적인 말세는 마귀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이요 마귀 세상을 끝내려면 마귀를 전멸시켜야 마귀 세상이 끝나는 것이다.

마귀가 죽어 없어져야 마귀 세상이 끝나고 마귀가 없어지면 천당이 되는 고로 천당이 이루어야 말세가 되는 것이다.

예수는 그 당시를 말세라고 했으나 말세는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죽여서 없애는 자가 나와야 말세가 되는 것이다.

저절로 때가 되면 말세가 되는 줄 알고 있으나 마귀와 하나님의 전쟁이 끝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겨야 말세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제버리면 말세가 안 되는 것이다.\*

이기는 삶

## 옳다고 강요하지 마라

대화란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가 시작되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한 얘기를 또 하며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당신 말이 옳아요"라는 대답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린다. 이런 사람은 토론이 벌어지면 기어코 상대를 눌러놓아만 쾌감을 느낀다.

대화를 나눔에 있어 설령 상대방의 논리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영광 진창이 될 때까지 몰아세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상대의 승복(承服)을 받아내려다 보면 말끝을 묻고 늘어지게 되고 이야기는 주제를 벗어나 시간만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인간관계만 해치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아무런 저항이나 감정 없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며 강제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든다면 몹시 분개하며 저항하게 된다. 그에게 소중한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도전받는 자신의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상황 또한 다르다.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이 바뀔 수 있다. 언제나 옳은 것은 없는 법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방적으로 상대를 몰아세우는 방식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아무리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주장이 100% 옳다고 장담하더라도 상대방이

반론할 여지는 어느 정도는 남겨두는 것이 인간관계를 지키는 토론 방법이다.

오히려 상대방이 나의 말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면 좋겠다는 낮은 자세로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상대방이 자존심을 내세워 완강히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면 곰곰이 생각한 후에 결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득을 위한 실득'을 강행(強行)하곤 한다. 상대를 내 눈앞에서 굴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꾸지람이 그렇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건데, 내가 누굴 위해 사는데"라고 하면서 꾸지람은 한없이 길어진다.

부모 세대의 가치관을 자식에게 강요하다 보니 이 얘기 저 얘기 사연이 많다. 마치못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진심이 아니다. 꾸지람은 짧게 끝내고 자식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훌륭한 부모이다.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장하겠다는 사고방식은 논리적으로 맞는지 모르나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그 상대가 자식이 되었든 부하직원이 되었든 간에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권리는 없다. 인간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는 것은 죄악이기 때문이다. 설령 내가 옳고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 논쟁은 진정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 구세주 5대 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한국 땅으로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한국에 여름 장마를 못 지게 겠다.
4. 한국에 계속해서 흉년들게 하겠다.
5. 한반도에서 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겠다.

## 극단적 기상이변 속에도 지켜지는 5대 공약

격암유록에 소래산과 노고산 사이에서 삼신이 역할한다는 곳이 속칭 밀실이다. 삼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밀실에서 연단받고 1980년도에 이긴자 완성자가 되신 분이 바로 사람 몸을 입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듬해 81년 8월 18일 오후 3시 50분에

이긴자께서 소래산을 마주보는 노고산 기슭 밀실에서 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때 '구세주 5대 공약'을 선포하셨는데, 이런 5가지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전지전능을 갖춘 구세주가 아니면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셨다.\*

## 지금은 감로이슬성신을 귀하게 여겨야 할 때



보광빌에 내린 감로이슬성신 (2019. 6. 19.)

성탄절 1부 행사시 열왕국에 내린 감로이슬성신 (2019. 8. 12)



승리빌 2부 행사시 장구 울림 중에 내린 감로이슬성신 (2019. 10. 15)

승리빌 2부 행사시 주님 피자에 내린 감로이슬성신 (2019. 10. 15)

### 구세주 보광 이후 2019 년도에 내린 감로이슬성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부단한 노력을 가해서 매일같이 제단을 쌓고 매일같이 감로이슬성신을 받으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면 천국에서 영원무궁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승리제단에서는 매일같이 감로이슬성신이 내린다.

2016년 4월 27일 본부제단 예배 시간에 방영된 주님 말씀 가운데 감로이슬성신과 관련된 것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승리제단은 하나님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도령을 만드는 곳이지요? 여기 정도령 될 사람이나 매일 나오지, 정도령 될 수 없는 사람은 나오다가 중간에 의심이 나서 안 나오요. 자옥 갈려나니까. 여기

는 정도령 될 사람, 하나님 될 사람만 매일 나와요. 왜 그러나 하면 여기는 구세주 정도령이 감로이슬성신을 내리죠? 그 감로이슬성신이 이 사람 얼굴에서 머리에서 코에서 계속 나오죠?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이 사람 눈에는 안 보여,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카메라 렌즈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포착이 되어서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감로이슬성신이 사람 눈에 안 보인다고 격암유록에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격암유록에 안 쓰여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날 구세주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 눈에는 그 감로이슬성신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감로이슬성신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승리제단 사진부에서는 이슬성신절, 성탄절, 승리절, 메시아절 등 절기 행사가 있는 날에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대체로 감로이슬성신이 내린 사진이 나온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19년 10월 15일 승리절 2부 행사시에 내린 감로이슬성신 사진이 나온 이후로, 거의 4년 동안 예배시간에 필름 카메라로 찍었지만 이슬성신이 나오지 않는다. 예배시간에 땀을 흘려가 연결되고 향취 체험이 되는 것을 보아 성전 안에 이슬성신이 내리는 것



은 분명한데, 요즘 카메라에는 이슬성신이 포착되지 않는다. 이슬성신이 찍힌 사진은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사용된다. 아무리 보여줘도 귀한 줄 모르는 마귀종에 대한 심판의 징조인가?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도 그렇고 최근 몇년간 지구촌 곳곳에 살인 폭염과 대형 산불, 대홍수를 동반하는 몰락단이 그러하다.\*